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삶과 영성(2)

—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의 학문적 영성적 읽기를 통해서
3월 26일 강의 계획서

오순절 성령강림과 교회의 탄생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님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사도 2,1-6)

- (1) ‘모두’는 120명 성도를 가리킨다
“그 자리에는 백스무 명가량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사도 1,15)
- (2) 왜 성령강림이 오순절(五旬節)에 있었는가?
 - ① “오십 일째 되는 날이 채워졌을 때”
 - ② 오순절 = 주간절/칠칠절/봄추수감사절
 - ③ 오순절에 무엇을 기념하는가?
 - ④ 공식적으로 교회가 창립된 날
 - ⑤ 교회의 어머니 기념일은 성령강림대축일 다음 날
- (3) 성령강림 때 있었던 현상들
 - ① “듯한”, “같은”
 - ② 하느님 현존을 가리키는 이미지들임

- ③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 ④ 왜 성령을 바람과 연결시켰는가?
 - 바람의 특성을 통해서 본 성령의 특성
- ⑤ 왜 성령을 불과 연결시켰는가?
 - 불의 특성을 통해서 본 성령의 특성
- ⑥ 왜 성령을 혀와 연결시켰는가?
 - 혀의 특성을 통해서 본 성령의 특성

(4) 성령강림의 결과

- ① 성령 충만하게 됨
- ② ‘다른 언어들’(=외국어)로 말하게 됨
- ③ 오순절 날 사도들이 했던 ‘다른 언어들’과 ‘신령한 언어들’(심령기도/방언)은 어떻게 다른가?
- ④ 사도들이 외국어로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했다는 것의 의미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사도 2,5-6)

- (1) “독실한 유대인들”
- (2)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대인들”
 - 디아스포라(διασπορά)란?
- (3) ‘발언’의 기적 또는 ‘청취’의 기적?
- (4) 바벨탑의 저주를 뒤집는 사건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래아 사람들이 아닌가?”(사도 2,6-7)

- (1) “어리둥절해 하였다”
- (2) “저들은 모두 갈릴래아 사람들이 아닌가?”
 - ☞ 갈릴래아인들의 역량

그들은 모두 놀라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며 비웃었다.(사

도 2,12-13)

- (1) 몰려온 군중의 이중적인 반응
- (2) 성령충만을 술에 취한 것과 비교하는 까닭

베드로의 아폴로기아(변론) 그리고 케리그마(복음선포)

● 베드로의 아폴로기아(변론)

그때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들으십시오. 지금은 아침 아홉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취하지 않았습니 다. 이 일은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
(사도 2,14-16)

- (1) 베드로의 아폴로기아(ἀπολογία)

아폴로기아(ἀπολογία)와 케리그마(κήρυγμα)

- (2) “지금은 아침 아홉시입니다.”

● 오순절 성령강림의 현상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

“이 일은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들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에 나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또 나는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징들을 일으키리니 곧 피와 불과 질은 연기다. 그 크고 찬란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둡으로, 달은 피로 바뀌리라.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사도 2,16-21 직역)

- (1) “이 일”
- (2) ‘모든 사람’
- (3)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 베드로의 케리그마(복음선포)

이스라엘인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지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사도 2,22 이하)

(1) 베드로의 케리그마(복음선포)의 구조

- ㉠ 예수님의 공생활과 십자가 죽음에 하느님의 역사가 함께 했음을 선포(사도 2,22-24)
- ㉡ 시편 16장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입증(사도 2,25-32)
- ㉢ 시편 110장을 이용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심을 입증(사도 2,33-35)
- ㉣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신앙고백(사도 2,36)

(2) ‘입증’이란 단어를 써도 되는가?

● 시편 16장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함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사도 2,24-28)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 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셨습니다.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사도 2,30-32)

- 예수님이 승천하시어 하느님 우편에 계심에 대한 베드로의 논지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님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그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사도 2,33-35).

- 예수님은 주님이요 메시아(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사도 2,36)

- 하느님이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들이 축약된 단어로 표현되어짐
노미나 사크라(Nomina Sacra)

- 베드로의 오순절 복음선포는 역사성을 지니는가?

- 베드로의 케리그마(복음선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1) 베드로의 케리그마가 갖는 특징
 - 철저히 성경 중심의 설교
 -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 청중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대범성

- (2) 구약성경의 중요성

정중의 반응과 베드로의 응답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꺾일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사도 2,37-39)

(1)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에서 갖는 또 다른 성찰

(2)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3) 세례는 교회 입문식

(4) 초대교회의 세례예식 절차와 예비자 준비 기간

(5) 세례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 3,000여명의 새 신자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으니 그 날에 믿는 사람들이 삼천 명 가량 늘어났다”(사도 2,41).

(1) 3,000명 가량이 어디에서 침례를

(2) 3,000명 가량이란 숫자를 적은 루카의 의도

▶ 성령과 관련된 논의들

(1) 오순절 성령강림은 오늘날에도 계속될 수 있는가?

(2) 성령세례는 언제 받는가?

① 견진성사는 성령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② 성령세미나, 성령기도회는 성령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3) 섬세하시고 수줍어하시는 성령님

(4)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분

(5)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충만하십시오”

① 양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

② “성령 충만”이란 명사형은 없다 ⇒ “성령으로 충만되어졌다”

③ 성령의 열매

- 성령의 열매이지,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다

- ‘성령의 열매’이지 ‘신자의 열매’가 아니다

(6) 성령의 은사, 특별히 방언(심령기도)의 은사에 대한 오해